

美 금융기관의 실적 불안감

- FRB의 경기둔화 시인으로 인한 금리 인하 효과 감소
- 미국 금융기관들의 손실규모 확대 가능성
- 시티그룹의 실적발표에 따른 증시 방향 및 변동성

▶ FRB의 경기둔화 시인으로 인한 금리 인하 효과 감소

지난주 미국 FRB 버냉키 의장이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을 시인하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의 신용위기 불안감은 점차 고조화 되고 있다. 이번 버냉키 의장의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인정은 미국의 경기 싸이클을 경기침체 방향으로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장기적인 증시 조절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1월초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미국시장은 FOMC의 금리인하 효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지난주 버냉키 의장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FRB의 경기둔화 가능성 인정으로 이미 노출된 금리인하 효과는 더 이상 증시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불안한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금융기관들의 손실규모 확대 가능성

지난 반년간 주식시장의 악재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신용우려가 점차 현실화 됨에 따라 미국의 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실 관련 규모는 대략 2,500억달러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의 손실규모는 이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2007년 3분기부터 모기지 관련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데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추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07년 3분기에 손실규모가 대손 비용에 충분히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4분기와 2008년 1분기에 재무제표에 계상될 손실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관련 대손비용의 확대에 의한 실적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티그룹의 실적발표에 따른 증시 방향 및 변동성

내일(15일, 현지시간) 시티그룹의 실적발표는 미국의 증시 방향과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티그룹은 미국 금융기관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관련된 익스포저가 가장 큰 그룹이라는 점에서 증시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티그룹의 서브프라임 관련 익스포저는 약 550억달러로 미국의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규모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티그룹은 2007년 3분기에 서브프라임 관련 약 16억달러를 손실처리 했으며 이는 메릴린치가 동기간 총 210억달러의 서브프라임 관련 익스포저 중 79억달러 손실처리 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대손상각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시티그룹은 4분기 중에 110억달러를 손실 처리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상각처리 규모에 따른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120~180억달러로 시티그룹의 4분기 손실처리 예상 규모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시티그룹이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처리를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은 110억달러로 발표한다면 2008년 1분기 이후 추가 손실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티그룹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되게 손실처리를 할 경우 오히려 향후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처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인 투자심리를 자극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 시티그룹과 메릴린치의 지난 3분기 손실처리 (단위:억달러)

	시티그룹	메릴린치
서브프라임관련 총 익스포저	550	210
07년 3분기 손실처리	16	79

자료: 각사 데이터, 리딩투자증권